

## 믿음 코너 : 믿음의 선배, 존 칼빈의 가르침, 그의 탄생 500년에 붙혀

칼빈만큼 기독교와 인류에게 커다란 교훈을 준 선각자도 드물다. 그의 의하여 종교개혁이 완수되고 개신교의 신학적 체계가 수립되었다고 말 할 수 있다. 그의 사상은 장로교, 청교도 운동을 통해 유럽, 북미, 그리고 한국 기독교에 전파되어 오늘에 이르렀고, 막스 웨버의 해석을 통해 현대 자본주의의 연원이라고 주장되며 존 스튜어트 밀의 의해 개인적 ‘자유’ 달성 방법의 근원, 그리고 쥘리앵 뱅크로프트에 의해 ‘대의 민주주의’에의 공헌이라고 주장된다. 여기 그의 신앙관을 요약해 소개함으로 우리 밀알의 개인적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편집자]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과 자신들에 대한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창조자 하나님을 이해하는 유일한 길은 성경 탐독이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행위를 인간이 완전히 이해하기란 원래 불가능한 일이다.

**인간의 원죄**는 최초의 인간 아담의 ‘失樂園’에서 비롯되어 모든 인류에게 승계되었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인간은 완전히 죄악으로 귀결되는 존재이다. 이를 방지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것이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사함을 받고 ‘失樂園’ 이전 상태의 인간과 하나님 관계로 복귀된다.

**豫定說** : 인간이 구원 받는 일을 포함하는 모든 인류역사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관적 행동으로 이루어 진다. 즉, 우리 개개인의 구원과 인류의 역사는 이미 태초부터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해석은 성 어거스틴, 성 토마스 아퀴나스, 마르틴 루터와 공통적인 견해이다.

**교회의 성례** : 카톨릭 교회는 영세, 견진, 성체, 고해, 중부, 신품, 혼배 등 7가지를 성례로 인정하나 칼빈은 신약성서에 등장하는 세례와 성찬예식 만을 성례로 인정한다. 성찬에 대해 카톨릭 교회는 성찬식에서 포도주와 떡 속에 실제로 예수님의 피와 살이 임재 한다고 보는 반면 칼빈은 단순한 상징이라고 보며 양 성례 시에 성령이 임재 하실 때 참여하는 신도의 신앙이 돈독해 진다고 본다.

**경건한 생활** : 기독교인은 근면하게 일하고, 기도와 찬양을 열심히 하며, 퇴폐적 쾌락을 멀리하는 경건한 생활을 철저히 행해야 한다. 실제로 칼빈이 주도한 주네브 시민의 생활은 그와 같아서 절제생활의 결과로 은행예금이 불어나고 이를 기업인이 차용해 더 큰 경제를 발전 시켰음으로 자본주의의 원동력은 칼빈의 경건생활에서 비롯되었다고 경제학계에도 회자된다.. 경건한 생활은 고 김정준박사가 강조하신 대로 한국의 기독교인이 꼭 지켜야 할 전통이다.